

연중 제 27 주 일

기도서 P. 449 A해

제1독서 (이사 5, 1-7절)

제2독서 (골리 4, 6-9절)

복음 (마태 21, 33-43절)

숲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이수현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부조리(不條理)를 척결하자!」

—세금포탈과 포도원 비유—

김 봉 희 신부

요즘 이 땅엔 별처럼 갑자기 솟은 과속(過速) 재벌들의 잇따른 탈세, 부정사건들로 가득이나 시달린 민심이 적잖게 통통하다. 그래 접없이 또, 그같이 엄청난 폭리를 탈세로 양민을 수탈, 치부에 혈안이 된 저 파렴치한들의 부정과 빛나간 현실의 부조리들을 한참 규탄, 성토할 때다.

그런데 문득, 씁쓸한 일이지만 벼룩이 만큼이나 째서계 특-쪼고 지나가는 또 하나의 알갭은 탈세사건(?)이 생까나 꾸녕살아 여기 실토해 본다. 어느 본당에서 어찌구니 없이 당한 일이다.

약 15년 전 이었다. 어떤 신부님이 공소를 일으킬 양으로 딱하고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 본당에서 그곳에 산으로 사서 경작, 관리케 했다. 그런데 잘 일대 활용해 공소발전을 꾀하기는 커녕, 몇년전엔 한 사람이 그만 교회와 상의도 없이 슬쩍 자기 명의로 바꿔 놓고서 이젠 되생생 요구를 요구하는 주인(교회)에게 큰 코를 치고 관용을 배를 부리는 야속한 꼴을 보았다. 교회 공익은 물론 못된 야심도 고쳐줄 결당장 「사기횡령죄」로라도 처단하라고 하지만 약한 신자(?) 소행이라 좀더 관용을 보이고 있던데, 도대체 이런 불의 앞엔 어찌해야 좋을지...? 민망하기 그지 없다.

그런가하면 또 가끔 겪는 우리(교회)안의 「아이러니」한 부조리들(?) 땀에 적어 난처하고 어이없어 할 때가 많다. 이런 때 또 뭐라 해야 할 것인지— 답답다 못해 고통기 짝 없다.

만사는 주님의 것, 집도 전답도 온갖 재물도 그리고 재능이며 건강 아니, 우리의 위대한 생명까지도 실은 내 것 아니 주님의 것. 모두 한 분이 세상살이 동안 우리에게 맡겨 주신 도지(賭地), 위임물이 아닌가? 그러기 그 분(主) 뜻에 맞게 그분을 위해 먼저 쓰여지고 바쳐져야 한다. 헌데도, 우린 주(主) 하느님께 우리의 도리와 본분을 너무도 자주 소홀히 해 오지 않았던가? 바질 것을 바치지 아니 하고, 주님께 대한 그리고 주님을 위해 마땅히 드러야 할 감사, 어찌면 그분 나라(교회)를 위한 당연한 세금(백성의 의무)인 교무금(봉헌금)조차 예사로 회피 내지는 제납치 않았는지 냉정히 반성해 볼 일이다. 이거야말로 정작 치탄 받아야 할 탈세(脫稅), 부정(不正)이 아니고 무엇이랴?!...말문이 막힌다. 백이 풀린다.

아무튼, 바른 「정의구현」을 위해 갖은 부정과 탈세, 비리를 자행하는 대역(大逆) 재벌, 권력자들을 하루속히 처벌, 바로잡아야 되겠다만, 우리 안의 비물어진 이 탈세, 부정 근성도 어서 바빠 척결(易決)토록 관심을 일깨우자. 그리고는 보다 힘있게, 보다 컷땀이 부정규탄(不正糾彈) 대열에 앞장 서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 할 것이다.” (마태오 21, 43) 하시는 주님의 의노(義怒)는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인상 싶다.

(장계 천주교회 주임신부)



죽으면 또 다른

—〈좋은〉바로 교황 서거에 부쳐—

요한·바로로 1세 새교황께서 너무나 갑자기 가셨다. 교황선출 소식을 방송에 보도되던 처음에는, 요한·바로로를 영어식으로 존·바로로로 방송을 해서, 어떤분은 <나쁜〉바로로보다는 <좋은〉바로로가 한결 낫다고 워트 넘친 표현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좋은〉바로로 교황께서 홀연히 우리와 유명을 달리 하셨다. 삼가 머릿속여 두 손을 모우자.

보도를 접해보면 역시 그분은 <좋은〉바로로 교황이셨다. 서거하시기 5일전에 건강진단을 할 주치의사가 「과도한 업무량을 염려, 직무속도를 늦출것을 건의」했다 한다. 이때 <좋은〉바로로 교황께서는 「별도리가 없읍니다. 교황이 죽으면 또 다른 교황이 선출되는 법이니까요」하고 답하셨다고 한다. 이 얼마나 두고 두고 음미해 볼만한 말씀인가.

사람이라면 대개는 누구나 죽음을 싫어한다. 아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알면서도 그렇게나 몸부림을 친다. 생명의 죽음에서 도망질을 치려다 비굴하게 끝장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 아니던 안된다는 오만에 빠져 권세의 죽음에서 피하려고 독재의 칼로 슬한 선의의 시민까지도 목졸라 죽이는 자들도 역사에서 보아왔다. 그러나 그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던가? 황금의 죽음이 싫어서 못가진 백성들을 수탈하고 갖은 비리를 저질러 사회악을 꽃피운 모리배들은 또 어떻게든? 어디 그뿐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죽어야 사는」 석어야 새 생명을 낳는 진리(眞理)를 배웠다. 그런데, 어떠한가? 단 몇일이라도 우리를 이끄셨던 <좋은〉바로로 교황의 말씀해서 다시 배우자.

—「죽으면 또...」

숲정이 산책



미소의 교황 사라지다!



현대에 있어서의 순교의 의미와 순교자상(1)

한 정 현(아우구스티노)

I

〈그리스도교회의 역사는 순교로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슬한 피의 얼룩집 속에서 시작되어 오늘의 교회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는 순교가 이미 끝나 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순교'라는 단어의 의의를 고어 사전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줄 착각하곤 합니다. 또한 순교가 전통 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던고 넘어, 순교가 지니는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대의 순교자상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2

〈순교의 현대적 의미〉와 〈현대적 순교자상〉에 연관시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종교박해가 끝난 현대에도 순교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일부 공산국을 제외함)가 국법으로 인정되는 20세기 후반인 오늘날도 순교자를 필요로 하는가?〉하는 의문들입니다.

첫째로,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종교박해가 끝난 현대에도 순교란 있을 수 있는가? 즉, 순교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인이 '순교'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색깔은 '뾰빛'이 아닌 '잿빛'(灰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싸늘한 화석이 되 버린 채, 현실에서 유리되어 박물관 안에 진열되어 있는 유물, 골동품 따위에서 느끼는 감정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신앙의 자유가 보호되는 현대에는 더 이상의 순교라는 피흘림이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종교박해와 순교는 이미 과거의 일이 돼 버렸다'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방식이 '얼마나 안이한가'에 대해서는 순교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는 순간, 금방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교가 과거의 일임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마태오 24, 14)이며, 역사 박물관 안에서 과거의 유물로 전시되지 않고도 오늘의 햇빛 아래서 살아 있는 '힐'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순교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영적 투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에페소 6, 12) 이에서 나아가, 성 아우구스티노는 현세의 교회를 일컬어 '싸우는 교회(神戰之會)'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족끼리의 전쟁과 싸움에 시달린 우리 민족은 이러한 표현에 저항감을 느끼는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작자는 바울의 이러한 표현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 이에 대한 불만을 수필토씨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이 바로, 바울의 말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복음서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마태오 10, 34)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질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순교의 현대적 의미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 의미의 순교가 "불의에 대항하여 목숨을 내걸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이 '불의'란 악일 수도 있고, 황금일 수도 있고, 또한 권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70년대에 접어들어 '화해 무드'니 '화해 체제'니 하여 정치의 판도가 바뀌었고, 한편 교회에서는 이번 성년을 '화해의 성년'으로 정하여 '화해'(고린도 후서 5, 19)의 진면목을 보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일부 사람들이 '화해'와 '타협'을 혼동하고, 더우기 '화해'와 '의로운 싸움'이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화해하기보다는 부·권력과 타협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불의와 야합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며 무엇과 화해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 불의와 권력에 굴복·타협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참된 행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다음 호에 계속)

□ 교육용·가정용·교회용·연주용

당신을 위한
써니 (SUNNY) 전자 울건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대리점: 전주시 고사동 1가 125

세 광 음 악 학 원

□ 대 표: 염 규 철(요섭) 2-6111

◆ 3년동안 뒷손을 보어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에 분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한 동 안 (모이세)

호남지구 마리아 빨리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께로 초대합니다.

“단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8, 20)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 때에는 마치 기쁨에 넘치는 잔치와 같아진다. 우리들의 작은 모임 큰 모임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는 각자의 얼굴에서 솟아나는 가득한 기쁨이리라.

끼아라의 “당위에 네불을” 에서

안녕하십니까? 1978년 호남지구(전라 남·북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마리아 빨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소개하고자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이 이웃 형제에 대한 큰 사랑이 되리라 믿습니다.

1. 일 시: 1978년 10월 28일(토) 오후 3시 개회-29일(주일) 오후 4시
※ 등록완료 당일 오후 1시~3시까지
2. 장 소: 전주 성심 여중고 강당
3. 회 비: 중고생 1,000원, 일반 1,500원
4. 숙 식: 식사 2식 (저녁·점심) 숙박 각자 해결
5. 신청마감: 1978년 10월 21일까지 (회비는 접수시에): (성명, 본당, 나이, 단체인명)
6. 접 수 처: 520 전주 가톨릭 센터 (전주시 서노송동 560번지 T. 3498)
7. 참가대상: ① 중고생 ② 젊은이 단체(교리교사, J.O.C., 성가대)
③ 본당 사도회 임원 ④ 신심단체 ⑤ 기타단체(학교, 병원, 직장등)

주 관: 국제 마리아의 사업회 한국지부

요심이 (271) 김병호



교우들의 전당
스타 사진관
전주시 고사동(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정읍대리점)

정읍전화 주간2719번 야간 4195번

대표: 고아오스딩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코버)

☆ 사진예술 창조의 집 ☆

현대칼라 특약점 **현대카메라 D·P점**

現代人은, 現代칼라로,
現代카메라 D·P점에서
현상·인화·확대·카메
라 대여
교우님들께 특별할인 합
니다

T. ③ 6360
(전주 동양아파트 정문앞)
代表 홍성조(그레고리오)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파티마 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라파 제과점 옆)
전화 ② 6219

개업 안내

시내 중앙동에서, 지난 7년 제단으로
교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하
기 장소에 개업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용 희(가브리엘)

☎ 2-6222(전북신문 사거리)

에이스 양복점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추계 주교회의...10(화)~13(금), 광주 피정의 집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교님들께 성신의 충만한 은총으로 회의가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기도합니다
 2. 교구 중·고등 학생의 날...오늘 오전 9시, 해성학교 ※ 대상...교구내 중·고등학생 ※ 내용...미사와 투각, 만남의 시간, 체육대회
 3. 호남지구 마리아 벨리...28(토)~29(일), ※ 순정이 3면 참조
 4. 영생대학 가톨릭 학생 모임...29(일) 오전 10시, 가톨릭 학생회관 (전북대 입구)
 5. 성령 세미나...11(수) 오후 6시, 정읍성당 ※ 매주 수요일날만 7주간 실시됨 ※ 이미 성령 세미나를 받으신 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상지원을 돕는 성금...매야 본당 25,600원, 전주시청 로사리오 회원들 20,000원
□ 이리지구 의연금...전국 방ziger 3회 회원들 177,910원을 교구 인성회 사무국에 전달
□ 천호공소 설치 안내판 시설성금...중앙성당 최인의 의탁P. 단원들 34,000원을 공소에 전달
※ 김준호 신부(창인동 보좌), 귀수술...기도해 드립니다.
■ 송남호 신부님 1 주기 추도미사...10(화)

(중앙)

전화 ③3651 / ③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오승영, 사도 회장 이현배

1. 꾸리아 월례회 : 8일(일) 오후 2시
 2. 송남호(요셉)신부 1 주기 미사 10일(화) 오전 10시 30분
 3. 환자 영성제 : 12일(목) 오후 2시
 4. 가정방문 : 12일(목)~13일(금) 금년 7월 영세자 및 새로 이사온 신자 가정
 5. 교부님은 별별로 남부 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174,765원

- 22일 공식미사 후, 부녀회-29일 공식미사 후
 3.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박상기 형제백)
 4. 복자성당 보좌신부님 배경예정 : 교구 공문 78-31호
 5. 보좌신부 사제관 강담에 개조설치 착수 협조 바람
 6. 4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 오늘 해성학교(응원과 협조 바람)
 7. 베델 성서 연구 수강자 명단(11명) 조성호, 김성원, 천건, 유기순, 허순덕, 허애자, 최복주, 김중남, 이명숙, 김성자, 노순덕
 8. 1월교장 : 오늘-김응식 형제, 다음주-이갑진 형제
- 지난주 봉헌금 : 184,308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아웅성, 사도 회장 김희복

1. 성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신우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3. 사도회 각 분과위원 선출 :
 - 선교분과(차장), 박태복(위원), 방춘원, 김광춘
 - 전례분과(차장), 임년호(위원), 양광식, 박장준
 - 봉사분과(차장), 차동주(위원), 윤갑동, 김재철
 - 재정분과(차장), 장성부(위원), 이병환, 강순도
 - 감사위원회(수석감사) 이홍재, 문형주 이상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4. 매피성월 : 육주신공을 매일합니다.
 5. 제1단계 영세식 : 11일(수) 오후 7시 30분
- ※ 축 후인미사 : 오늘 11시 30분 신랑, 함영철(프란치스코), 신부 전선자(테레사)
□ 지난주 봉헌금 : 63,92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선교주일 : 10시미사 후, L.M 잔부회 있음
 2. 예비자교리 : 10시미사 후, 교리 있음
 3. 국민학교 체육대회 : 9일(해성중학교)
 4. 반상회 : 10일(5반), 11일(6반), 12일(7반), 13일(8반)
- 지난주 봉헌금 : 37,8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견진성사 : 오늘 공식미사 중
 2.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어머니성가대 성가연습 : 매주(목) 오후 2시 반
 4. 주일학교 어린이 놀놀이사진 나눔
 5. 교적은 내가 살고 있는 분당으로...
 6. 주일학교 교리 : (토) 오후 3시, 부모님의 협조를...
- 지난주 봉헌금 : 103,24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석덕상, 사도 회장 유제상

1. 축! 복자회 탄생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발족 회장 : 김용환(요한), 부회장 : 소병을(누가); 총무 : 김기(안토니오), 감사 : 송영기(요왕), 소완영(스베파노)
- 30세 이상 회망하시는 분은 환영
2. 타분당에 교적있는 분은 빠른 시일내에 교적을 옮기시기 바람. 구역 : 금암동, 덕진동, 팔복동, 송천동은 본당 관할
3. 4지구 어린이 체육대회 : 10월 9일 해성학교 교정에서 부모님의 협조와 성원 있기를 바람
4. 젊음의 광장에 나 함께 모여 미사와 성가를... 일시 : 매주 화요일 7시 30분
5. 근로자들의 모임 : 토요일 P.M 7시 30분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철성, 보좌 신부 이순종, 사도 회장 유석중

- ※ 10월은 매피성월+봉헌의 달
1. 자모회 : 10시미사 후
 2. 장우회 : 저녁미사 후
 3. 성가정회 : 월요일 오후 2시 30분
 4. 예비자교리 : 주일 낮, 수·목 : 저녁 8시
 5. 영세기념사진(사무실)
 6. 젊은이 피정 : 14일 오후 2시~15일 오후 성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회비 : 2,000원 (말씀안에 제시 하느님)
 7. 성화회 단합대회 : 대전조항 2층
 8. 사도회 의결사항 : 성당구내 조경 미화
 9. 주일학생 시내 본당 체육대회 : (9일 해성)
- 지난주 봉헌금 : 190,290원 고무금 : 200,00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미사시간 변경 주일 : 새벽미사-6시, 공식미사-10시, 어린이미사-오후 4시, 저녁미사-7시 반 평일 : 월-오전 10시(어머니미사), 화-오후 7시 30분 수-오전 6시, 목·금·토-저녁 7시 30분
2. 신심단체별 로사리오 기도 : 성우회-8일 공식미사후 청년회·학생회-15일 공식미사 후, 레지오마리에-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 회장 채수현

1. 미사시간 변경 : 10월 8일부터 저녁미사 오후 7시
 2. 어린이 체육대회 : 10월 9일 해성중학교
 3. 학생회 : 주일미사후(교리실) 중·고생 별도 회합
 4. 가정방문 : 10월 10, 11, 12 일자 1, 2단지, 예그린
 5. 수녀원 증축 : 납입자 : 김삼호, 김광택(5,000원), 라병희, 익명(3,000), 김성녀, 송아나다시아(각2,000) 채수현(10만원), 윤영섭(50,000원), 김용무(10,000) 장용근(20,000), 강수경(8,000), 납입계 : 334,000원 신일 누계 : 547,000원
- 지난주 봉헌금 : 30,885원